

순천, AI 도입으로 안부 살핌부터 응급 대응까지

순천케어콜·AI앰블런스 등 스마트 서비스 제공

시 누리집 AI ‘이루미’ 챗봇 운영… 24시간 상담

순천시가 의료, 복지,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안부도 살피고 생명도 구하는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대화형 AI ‘순천 케어콜’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가구에 매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 AI는 이전 대화를 기억해 맞춤형 대화를 이어가며, 단순한 안부를 넘어 마음까지 살피는 ‘친절한 AI 복지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순천 살핀 안녕 앱’과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감지해 응급 상황을 파악하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도 운영 중이다.

현재 약 2,800여 명의 시민들이 AI 안부 살핌 케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8월 왕조1동에 거주하는 윤 모 씨가 ‘순천 케어

콜’에 응답하지 않자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방문, 기력을 잃고 누워있는 윤모 씨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한 바 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AI앰블런스’ 시스템을 도입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병원을 연결하고 최단 경로를 안내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이송·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료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순천중앙병원 등으로 AI앰블런스 시범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



톨릭병원 주도로 다양한 응급 사례를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응급의료기관과 소방서간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민 행정 서비스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 누리집에는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챗봇 ‘이루미’를 운영 중이며, 외국어 실시간 번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네이버 공공정

보 특화검색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이 ‘순천’을 검색하면 AI가 관광명소, 시장 소식 등 유용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행정업무 중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공동체 돌봄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순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순천시는 2025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규대상자를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이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순천시에서 10만원을 36개월 동안 매칭 적립하여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만가 시 본인 적립액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아 구직·창업·결혼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순천시 거주 18세~45세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인 약 287만원/월) 이하인 자이다. 또한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근로자이거나 6개월 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자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희망저축계좌, 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공무원(공무직)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된다.

곡성,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1800여 만 원 성금 기부



곡성군은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특별 모금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금은 곡성군청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주민, 각종 단체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지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총 1,800여만 원이라는 성금이 모였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많은 공직자와 지역 주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곡성군 또한 5년 전 수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국 지자체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모금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모인 성금이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영남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김철우 보성군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광양시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에 3년 연속 동참하며 제도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을 실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시장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부터 경북 포항시를 포함한 자매



결연도시 7곳에 기부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 특히 2023년 8월과 2024년 6월에는 고향사랑기부금품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된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참여

해, 나주시와 보성군에 기부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올해로 네 번째 기부에 나선 정인화 시장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보성군에 기부하며 연대와 협력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김철우 보성군수도 광양시에 기부로 화답하면서 두 지역 간 상생의 의미를 더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뿐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거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뜻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

보성, 올해 2차 추경 7715억 확정…1차보다 931억 증액

민생 안정·지역 활력 전략적 투자

보성군은 제3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총 7715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 대비 931억원(13.7%)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6589억원(758억원 증가)·특별회계는 1126억원(173억원 증가)으로 편성됐다.

보성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세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또 지역민의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재정 운용에도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 주요 예산 배분은 농림해양수산 293억원, 환경 248억원, 일반공공행정 9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4억원, 문화관광 55억원, 사회복지·보건 34억원,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 14억원 등이다.

군은 인구 감소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도 중점을 뒀다. 보성·별교커뮤니티센터 예술정원 조성 30억원, 청년활력마을 조성 10억원, 청년자립대 조성 5억원, 그린노린마를 조성 5억원, 문화 꿈나래 공유거점 조성 2억원 등 청년유입 촉진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보성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형 사업도 대거 반영됐다. 보성해양테마관광 거점 조성 72억원,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8억원, 발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 53억원, 발교장도 갯벌탐방로드 조성 38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0억원 등이다. 생활환경 개선 부문에서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9억원 등 환경인프라 확충에 나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위기 속에서도 보성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보성=장국영 기자

구례 ‘제81회 지리산남악제·제44회 군민의 날 행사’ 성료

군민 다함께 즐기고 화합 4마당 29종목 행사 개최



구례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남악사 및 화엄사 시설지구, 공설운동장 등 구례군 일원에서 ‘제81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4마당 29종목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구례읍 시가행진과 군민의 날 체육행

사, 군민 노래자랑, 남악제례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 전시·체력, 경연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첫째 날인 19일에는 군청에서 시작해서 공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시가행진으로 진귀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어서 공설운동장에서는 읍·면별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입장식을 시작으로 군민의 날 기념식이 이어졌다.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관내 종교등

학교에 장학금 기부와 구례학사 확장 이전 등 인재육성에 기여가 많은 신 장용갑님이 수상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줄다리기, 400m 계주, 족구, 축구, 게이트볼, 씨름, 단체줄넘기, 파크골프, 한궁 시범경기까지 9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다. 특히, 올해는 재경구례군향우회에서 300여 명의 향우가 같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줌에 따라 향우vs기관·사회단체장의 변의경기로 전선 줄다리기 경기도 펼쳐져 1대 1 무승부로 화합을 도모했다.

이후 저녁 7시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실내체육관에서 군민 노래자랑이 열렸다.

다음날인 20일 오전 10시에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제81회 지리산 남악제례를 절기상 곡우(穀雨)에 남악사에서 봉행하였고, 이후 장죽전 녹차 시배지에서는 현공다례가 진행됐다.

/구례=오광범 기자

곡성,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납부액 20%·산재보험료 납부액 30~50%

곡성군이 지역 내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다. 근로자들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마련이지만, 자영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곡성군은 지역의 1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 2021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

하며 가입을 적극 독려해 왔다.

사업 신청자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고, 산재보험은 등급에 따라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선납 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50~80%를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와 군의 지원사업을 모두 신청할 경우 등급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70~10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곡성군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나 소상공인회 망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홍경백 기자

순천, 경작 목적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자경농민 농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청하세요

순천시는 자경농민이 도시지역 외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경농민은 기존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직전 연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및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한다.

실제 사례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6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00만 원을 감면받았으며, B씨는 2022년 5월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2024년 9월 상속등기 마친 후, 지방세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119만 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다만, 감면받은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순천=조순익 기자

‘구·곡·순·담 100세 잔치’ 성황리 개최

4개 군 장수비결 등 건강한 삶 가치 재조명



구례군은 지난 18일 순창군 일원에서 열린 제14회 구곡순담 100세 잔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곡순담 100세 잔치는 구례·곡성·순창·담양군 4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장수벨트행정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4개 군의 장수 비결을 창작마당극을 통해 각색하여 건강한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구례군에서는 12부부가 사전에 부부 전시 및 영정사진을 촬영하고 입장 퍼레이드, 마당극 관람, 참주름 축

제장까지 구경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를 즐겼다.

또한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는 제2회 구곡순담 파크골프 및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돼 200여 명의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구례군은 게이트볼 B조 1위와 파크골프 개인 남자 부문 1, 2위 성과를 거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광양, 경로당 30개소에 그린PC 보급

1년간 무상 A/S도 지원… 디지털 격차해소 앞장

광양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 30개소에 ‘그린PC’를 보급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린PC”란, 내구연한(5년)이 경과된 업무용 불용 PC를 부품 교체 등을 통해 재정비해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컴퓨터다. 시는 어르신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해 도출종료당 등에 이를 보급했으며, 지원된 PC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한다.

또한, 시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쉽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린PC 설치와 함께 인터넷 연결, 한글 프로그램 설치, 사용법 안내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병행했다.

이번 사업으로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다양

한 정보를 접하고, 온라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미 광양시 디지털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은 어르신 재활동과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광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총 18대의 사랑의 그린PC를 정보소외계층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통해서도 무료 PC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양=조순익 기자